

SK, 신약물질 FDA 임상시험 허가

정신분열증 치료물질 YKP1358 ... 2003년 말부터 현재 임상시험 추진

SK가 정신분열증 치료물질로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받았다.

SK는 10월6일 공시를 통해 독자기술로 개발한 정신분열증 치료용 신약물질인 <YKP 1358>이 최근 미국 식품의약청(FDA)에서 임상시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.

SK는 <YKP 1358>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치료 효과는 높고 부작용은 최소화한 물질로, 2003년 8월12일 임상시험 허가를 신청한 데 이어 9월13일 임상시험 허가가 확정됐다고 설명했다. 2003년 말부터 미국 현지 연구소인 SK바이오-파머슈티컬(Bio-Pharmaceutical)을 통해 독자적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추진할 계획이다.

SK의 <YKP 1358>의 FDA 임상시험 허가는 이미 임상1상을 마치고 임상2상을 진행중인 우울증 치료용 신약물질 <YKP 10A>, 간질 치료용 신약물질 <YKP 509>에 이어 3번째로, SK는 앞으로 독자 임상개발을 통한 SK 브랜드 신약의 가능성도 타진하고 있다.

SK는 1999년 6월과 2000년 11월 Johnson & Johnson 계열사인 울소맥닐과 얀센에 각각 간질치료제 <YKP 509>와 우울증 치료제 <YKP 10A>를 기술판매한 바 있으며, Johnson & Johnson의 J&J PRD는 2002년 9월 우울증 치료제 <YKP 581>을 임상 후보물질로 선정했다. <조인경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10/07>